



지난 20일 경희의료원 암병동에서 교수의회 제2차 전체 임시대의원회 시작 전 범대위 소속 구성원 단체 대표자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며 교수의회 대표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이날 총동문회 박용화 수석부회장은 “교수의회가 구성원 소통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일갈했다.

대평의 규정안 논란 한 달째 ‘표류’

강석현 기자 nujabes99@khu.ac.kr

‘대학평의원회(대평의) 종장선출규정(선출규정) 논란’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 범인 이사회가 제시한 구성원 의견 수렴 기간인 5월 20일을 훌쩍 넘긴 상황 속에서 교수의회와 종장선출 범경희대책위원회(범대위)는 서로 대립되는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각각 범인 압박 카드를 꺼냈다. 이에 ‘범인 대구성원’, ‘교수의회 대 범대위’로 격화된 대립이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범대위는 이사장 면담을 요청하며 응하지 않을 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로 전환할 것이라고 범인을 압박했다. 범대위는 지난 22일 긴급회의를 열고 ‘대평의 선출규정 논란’과 관련한 토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 “총장 선출은 오직 범대위에서만 논의되어야 하며, 지난 3월 범인이 제시한 종장후보추천 규정(추천규정) 초안은 폐기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아울러 범대위는 지난 23일 범인에 ‘이사장 면담 요청서’를 전달하고 만약 이사장이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요청서에는 교수의회를 제외한 전 구성원 단체의 서명이 기재됐다.

서울캠퍼스 종학생회 김수혁(자율전공학 2016) 회장은 “범대위 구성원들은 종장 선출을 진행하기 위해서 범인에 소통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수의회가 전혀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다”라며 “많은 학생들이 다른 구성원들과 소통에 임하려 하지 않는 교수의회 측 태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수의회는 범인에 대평의 선출 규정 채택을 종용했다. 교수의회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달 22일 열린 제5차 대평의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채택한 선출규정을 지난 3일 범인 이사회가 수용하지 않은 것에 분노한다”며 “범인이 2019학년도 1학기 중에 종장 선거 절차에 착수할 것을 요구하며, 만약 범인에 의해 구성원들과의 약속이 파기될 경우 그 주된 책임은 이사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언언한다”고 밝히며 범인을 압박했다.

교수의회 강재식 의장은 “지난 3일 열린 범인 이사회가 대평의 선출규정을 반려하고 그 책임을 구성원 단체들에게 돌리면서, 교수의

회에서 그동안 일관되게 요구한 이번 학기 중 종장 선거 실시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했다”며 “범인이 지금의 방관적 태도를 바꾸면 문제는 오히려 쉽게 풀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수의회는 자체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대평의 선출규정의 투표반영 비율을 고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조사 대상 교수 1,321명 중 701명이 응답했으며 이 중 64.9% 가량이 ‘대학평의원회에서 논의하고 확정한 교수 투표반영 비율(75%)을 고수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평의 선출규정 논란’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20일 교수의회가 주관한 제2차 전체 임시대의원회가 시작되기 전 총동문회, 경희대학교 노동조합, 민주노총 경희의료원지부, 경희학원 통합노동조합(경희학원노조), 서울캠퍼스 종학생회 등이 모여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언쟁이 다소 격렬해지는 등 혐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날 경희학원노조 장백기 위원장은 “범대위에 왜 참여하지 않느냐. 구성원 간 논의를 하자는 것

이냐 말자는 것이냐”고 항의했으며, 총동문회 박용화 수석부회장은 “소통에 문제가 생기면 비공식적으로라도 만나서 입장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수의회 강재식 의장은 “지난 달 19일 대평의에 참여하지 않는 일부 구성원 단체를 정중히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해당 구성원 단체 대표자들은 ‘총장 선출제 논의의 주체는 대평의가 아닌 범대위가 맡아야 한다’며 당일 간담회를 돌연 취소한 바 있다”며 “돌발적 시위를 통해 교수의회에 압박을 가하면서 한편으로 대화를 요구하는 방식은 지극히 모순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속되는 논란 속에서 대학본부는 빠른 시일 내 구성원 간담회 일정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장실 김동준 과장은 “교수의회와 범대위에서 각각의 의견서를 범인과 대학본부에 보내왔지만 구성원 합의안은 전달받지 못했다”며 “우선 소규모라도 참석할 수 있는 구성원 단체 대표자들과 일정을 조율해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리어프리존, 장애학생도 안전하게 축제 즐긴다

한진석 기자 jinseok@khu.ac.kr

【서울】 서울캠퍼스(서울캠) 종 학생회(총학)가 장애 학생의 원활한 축제 관람을 돋기 위해 ‘배리어프리(Barrier-free) 존’을 마련했다. 지난해에도 배리어프리 존이 설치됐지만 올해는 위치와 이용 대상을 보완했다.

배리어프리 존은 장애 학생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관중석과 별도로 설치한 ‘장애 학생 전용 좌석’이다. 총학은 배리어프리 존 설치를 위해 장애 학생지원센터로부터 장애유형과 수요 등 정보를 받고, 장

애 학생에게 사전 신청을 받았다.

장애 학생은 휠체어석과 일반좌석을 선택할 수 있고 동반 1인을 위한 좌석도 함께 제공됐다. 장애 유형에 따른 구분은 없었으며, 사전에 조사된 입장 시간 및 인원에 맞춰 좌석이 조정됐다. 배리어프리 존 운영 전반을 담당한 총학 박하영(정치외교학 2017) 전략실장은 “모든 학우가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기 위해 당연히 만들어야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했다”며 배리어프리 존 설치 계기를 밝혔다.

직접 확인한 결과 장애 학생이 자리에 앉았을 때 시야를 제한하는

환경은 없었다. 좌석 뒤쪽에는 안전을 위해 펜스가 설치됐다. 배리어프리 존을 이용한 한채정(행정학 2019) 씨는 “청각장애인 특성 상 일반 관중석에 있을 때 공연 내용이 거의 들리지 않았는데 배리어프리 존은 비교적 무대와 가까워 소리를 크게 듣거나 입 모양을 읽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고쳐야 할 점은 있었다. 배리어프리 존이 안내도에 표기되지 않았고 일부 자원봉사자들이 행사 중 시야를 가려 관람에 어려움을 겪은 장애 학생도 있었다. 송채원(행정학 2016) 씨는 “배리어프리 존의 설

치는 환영하지만 지체장애 학생의 눈높이에서는 행사 관람이 제한되는 등 당사자의 관점에서 다시 검토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 역시 관련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장애 학생들의 안내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였다.

총학 박 전략실장은 “사전에 조사한 시간에 맞춰 입장 준비를 했으나 실제 입장 시간과 차이가 생겨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면서 “이번 축제 경험을 토대로 차후 배리어프리 존 운영에 다양한 개선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면안내

총장 선출제 구성원 의견 》4-5면



왼쪽부터 박영국 총장직무대행, 총동문회 권오형 회장, 경희학원 통합노동조합 장백기 위원장, 민주총동문회 김재운 회장

창간기념기획

뉴스레터, 독자적인 정보제공 채널로
발돋움 목표 》7면